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Participating in the Senior Employment Project

유용식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Yong-Shik Yoo(yoos@semyung.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참여노인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임파워먼트 및 노인의 생활만족도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임파워먼트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임파워먼트가 높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책제언을 하면, 첫째,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둘째, 새로운 사회적지지망 형성과 자원 개발·연결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들의 일자리 욕구에 부합되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같은 임파워먼트 접근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노인일자리사업 | 자아존중감 | 사회적지지 | 임파워먼트 | 생활만족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factors like self-esteem, social support, empowermen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participating in the senior employment project. As a result,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empowerment show significant effect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participating in the senior employment project. In other words, when the elderly participating in the senior employment project have higher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empowerment, their life satisfaction becomes higher, too. Based on the findings, this author will make political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o develop and distribute new employment programs to improve their self-esteem. Second, it is necessary to form new social support networks and develop and connect resources. Third, the empowerment approach to provide customized employment suitable for the needs of the elderly is necessary.

■ keyword : | Senior Employment Project | Self-esteem | Social Support | Empowerment | Life Satisfaction |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접수일자 : 2015년 07월 28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9월 02일

수정일자 : 2015년 09월 02일

교신저자 : 유용식, e-mail : yoos@semyung.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고령화는 우리사회에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지만, 특히 중요한 문제는 생산연령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인력의 감소로 생산성을 저하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바로 노인일자리사업이다.

노인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 개인적인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문제인 국가의 생산성증대, 사회적부담의 경감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노인들이 일을 통한 경제활동은 단순히 생계유지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의 기능 이외에 사회적 소속감, 참여의식 증대, 정서적·정신적 안정을 갖는 효과로 이어진다. 국가적으로도 인력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을 통해 사회공공부문이 담당해야 할 노인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갖는다[1].

이처럼 노년기의 일은 일 할 수 있는 의욕과 능력을 가진 노인에게 일터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생활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립을 제공하게 하고, 삶의 보람과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광역 및 기초지자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의 민간기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이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소외감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하는데 있다[2].

그동안 노인일자리사업은 양적 확대에 의한 성장은 이루어졌으나, 질적 발전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양적 목표 달성과 같은 사업의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강조됨으로써, 일자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사업의 목적은 다소 간과되어 왔기 때문이

다. 향후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은 대부분 저소득 취약계층이고, 참여동기는 본 조사연구 결과에서도 79.4%가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생활만족은 일반적 노인들의 생활만족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는 노인들의 문제해결과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시킴으로써 그들의 생활만족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가 그들의 행복한 삶의 만족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요인을 밝힘으로써 일을 통한 사회적 참여에 대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4].

그동안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선행연구들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2-4], 생활만족도[2][5], 직무만족 및 직무성취[6]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임파워먼트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노인일자리 참여노인들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와 생활만족도와의 영향력을 살펴본 논문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갖는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임파워먼트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일자리사업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

는 노인복지법과 노동부가 주관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있다. 근거로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제23조의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한다. 노인복지법 제23조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3조의 2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창출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사업의 의의가 있다. 사업목적은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절감,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내용은 [표 1]과 같이 사회공헌형과 시장진입형으로 구분한다. 사회공헌형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으로 구분하고, 시장진입형은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으로 구분된다[7].

표 1. 노인일자리 사업내용[7]

구분	유형	설 명
사회 공헌형	공익형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참여노인 인건비와 부대 경비를 전액 지원
	교육형	
	복지형	
시장 진입형	공동작업형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	

2. 노인의 일과 생활만족도

노인의 일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앞서 본 연구에서 노인의 일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임파워먼트에 대한 이

론적 배경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성공적인 노화와 인생을 만족해하면서 생애를 마치는데 있어 필수적인 정서이며, 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적·평가적 수준을 나타내는 심리적 양상으로 인생경험에서 얻어진 자기에 대한 느낌 혹은 자기 가치에 따라 형성되는 자아 가치감을 말한다. 특히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고, 다양한 변인과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은 중요하다[8].

사회적지지는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본적인 욕구충족에 필요한 물질적 도움이나 사랑, 인정 등과 같은 정서적 지원, 정보 등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9].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지지는 크기가 크지 않으며 오히려 더 좁아져서 마침내 소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지지는 노인의 심리적인 위축과 더불어 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문제발생에 원인으로[10] 작용하기 때문에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임파워먼트의 사전적인 의미는 “~에게 힘 또는 권한을 주다” 혹은 “~에게 능력이나 자격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임파워먼트는 사회적 변혁을 지향하는 거시적 수준, 개인의 감정적인 힘과 통제력을 고양시키는 미시적 수준, 그리고 대외적 차원에서 힘을 개발, 증강시키는 중범위의 관계적 수준이 있다[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수준의 임파워먼트를 적용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다음은 노인의 일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생활만족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며,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의미와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긍정적인 자아관념을 가지고 자신의 현재 약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2].

노인의 일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는 Havighurst(1968)의 생산적 활동 관련이론을 근거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활동이론에 의하면 노인은 자발적으로 완전히 사회적 관계를 끊을 때까지 적절한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생

활의 질과 심신의 건강을 높일 수 있는데 인위적인 사회제도를 통하여 강제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될 때는 고립감, 무력감으로 생활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하였다[13]. 역할이론에서는 노인의 생활만족은 노화에 의해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상실에 의해 감소된다고 보고 있다[14].

생태학적이론에서는 노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와 능력향상의 기회를 적절히 부여한다면 자신의 능력을 재확인하여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생활환경을 능동적이며 창조적으로 이끌어 감으로써 사회가 요구하는 상황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으므로 생활만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15][16].

노인의 일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개선시키며, 특히 적절한 소득은 노인의 최소한의 생존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노화의 삶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노인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17].

위 이론을 근거로 노인들에게 일자리는 경제적인 욕구충족 외에 성공적 노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즉 일자리 참여가 노인들의 기본권 및 생활만족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노인들의 긍정적인 생활만족을 위해서는 활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노인의 활동을 증가시켜 주는 것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향상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5].

3. 선행연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일자리와 생활만족도 관련 선행연구이다. 노인들의 직업 유무 등을 포함한 경제적 상태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거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의 직업활동은 삶의 질과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4][5]. 권치영 외(2007)[18]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집단과 비 참여 집단과의 비교연구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장신계 외(2015)[4]는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참여만족, 경제상태만족 및 자기가치감은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경분 외(2014)[2]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은 참여 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와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 관련 선행연구이다.

Atchley(1982)[19]에 의하면 일을 비롯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자아개념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역할지지를 제공하고 이러한 역할지지는 개인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하며 결국에는 높은 생활만족도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에게 일을 통한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 자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로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21].

셋째, 사회적지지와 생활만족도 관련 선행연구이다. 소희영 외(2011)[22]은 노인의 사회적지지는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신계 외(2014)[3]는 사회활동은 정서문제를 매개로 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errans와 Powers(1992)[23]는 삶의 질이 건강 기능, 사회경제적 상태, 정서 상태, 가족 형태 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부정적인 삶의 질을 경험하는 노인들은 다양한 사회적지지를 필요로 하게 되며, 이러한 사회적지지는 노인들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

Bowling 등(2003)은 사회적 역할상실과 가정에서의 역할 축소를 경험하는 노인들에게 있어 사회참여는 자신의 정체감을 확인하고, 환경으로부터의 소외감을 덜 느끼게 되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24].

넷째, 임파워먼트와 생활만족도 관련 선행연구이다.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임파워먼트의 의미성, 역량, 영향력이 직무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노인일자리와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지지와 생활만족도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있으나,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임파워먼트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

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인구사회학적특성,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기존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임파워먼트의 변인들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대상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조화 된 설문지를 통해 충청북도 제천시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1년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 본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허락한 응답자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6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5주간 실시하였으며, 총 300부를 조사하였으나 부실 기재된 28부를 제외한 27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노인일자리 기관에 조사에 대한 협조요청이나 협조안내문을 발송하여 조사를 허락한 대상자에게 자기기입식(self-report) 설문조사 방법과 글을 읽을 수 없는 어르신들은 본 연구자 및 교육받은 5명의 조사원들이 설문문항을 한 문항씩 읽으면서 기입하는 면접형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집 방법은 비확률 표집 중 임의표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2.1 종속변수

생활만족이란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에 삶과 활동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이다[25]. 이러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은 경제문제와 건강문제, 사회참여라고 하였다[26]. 이에 본 연구의 생활만족도 척도는 지은숙(2010)[27]이 사용한 척도로 신체 7문항, 심리 5문항, 경제 3문항, 사회 3문항으로 총 18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매우 그렇다'의 Likert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Cronbach

Alpha 값은 .870으로 나타났다.

2.2 독립변수

2.2.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건강상태, 경제상태 등을 살펴보았다.

2.2.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된 개념으로 자신의 존재를 수용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가치와 본질에 대한 신뢰는 나타내는 것이다[28]. 이에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김계하(2005)[29]가 번역하여 사용한 7문항 척도에서, 일과 관련된 문항이 직무만족도 척도와 중복되기 때문에 한 문항을 삭제하여 총 6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1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 '매우 그렇다'의 Likert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Cronbach Alpha 값은 .790으로 나타났다.

2.2.3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가족, 친척, 친구 등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도움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사회적지지 척도는 Social Support Appraisals Scale(SSA)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 친구,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원척도는 Vaux et al(1986)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배지연(2005)[30]이 번역하여 사용한 척도로 총 20문항 중에서 2문항(존중받는 느낌과 친구관계)은 중복이 되어 제외하고, 가족 6문항, 친구 6문항, 주변사람 6문항으로 총 18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매우 그렇다'의 Likert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Cronbach Alpha 값은 .925로 나타났다.

2.2.4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는 어떠한 이유로 본래 가지고 있는 힘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힘을 가지는’ 과정을 말한다[31]. Spreizer(1995)[32]는 조직원이 부서에서 지각할 수 있는 주관적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바탕으로 능력, 의미성, 영향력, 자기결정성이라는 4개의 인지 속에 구체화된 동기 부여적 구성개념이라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임파워먼트 척도는 Spreizer(1995)[32]가 개발한 Texts of Items Measuring Empowerment를 이선영(2007)[33]이 번역하여 사용한 척도로 3가지 하위영역인 의미성 3문항, 능력 3문항, 자기결정력 3문항으로 총 9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매우 그렇다’의 Likert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Cronbach Alpha 값은 .826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방법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 평균 차이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생활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중심으로 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생활만족도와 의 관련성과 다중회귀분석의 전제조건으로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다양한 변수들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자아존중감 변수, 사회적지지 변수, 임파워먼트 변수를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모델의 적합도 변화와 설명력의 변화, 변수의 영향력 변화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20.0을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성이 103명

(37.9%), 여성이 169명(62.1%)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76-80세 이하가 111명(40.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1-75세 이하 101명(37.1%), 65-70세 이하가 33명(12.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75.67세(SD=3.927)였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72)

구분		사례수	%
성별	남자	103	37.9
	여자	169	62.1
연령	65-70세이하	33	12.1
	71-75세이하	101	37.1
	76-80세이하	111	40.8
	81-90세이하	27	9.9
교육수준	무학	62	22.8
	초등학교졸업	125	46.0
	중학교졸업	40	14.7
	고등학교졸업	40	14.7
배우자유무	대학졸업	5	1.8
	배우자 유	132	48.5
건강상태	배우자 무	140	51.5
	매우나쁨	11	4.0
	나쁨	44	16.2
	보통	136	50.0
	좋음	55	20.2
경제상태	매우좋음	26	9.6
	매우나쁨	30	11.0
	나쁨	94	34.6
	보통	137	50.4
	좋음	9	3.3
	매우좋음	2	0.7

교육수준은 초등학교졸업이 125명(4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학이 62명(22.8%), 중학교졸업과 고등학교졸업이 각각 40명(14.7%)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유무는 배우자무가 140명(51.5%)으로 배우자유 132명(48.5%)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보통이 136명(5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좋음 55명(20.2%), 나쁨 44명(16.2%), 매우좋음 26명(9.6%), 매우나쁨 11명(4.0%)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보통이 137명(50.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쁨 94명(34.6%), 매우나쁨 30명(11.0%), 좋음 9명(3.3%), 매우좋음 2명(0.7%) 순으로 나타났다.

2.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1 생활만족도 관련 요인 간의 상관관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각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3]과 같이 최종결과 변수인 생활만족도의 경우는 자아존중감($r=.553, p<.001$)과 가장 큰 정적관계를 보였으며, 임파워먼트($r=.497, p<.001$)와 사회적지지($r=.492, p<.001$) 또한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보이고 있다.

임파워먼트의 경우는 사회적지지($r=.496, p<.001$)와 자아존중감($r=.374, p<.001$)과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지지의 경우도 자아존중감($r=.413, p<.001$)과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3. 생활만족도 관련 요인 간의 상관관계

변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임파워먼트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1			
사회적지지	.413***	1		
임파워먼트	.374***	.496***	1	
생활만족도	.553***	.492***	.497***	1

*** $p<.001$

2.2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다중공선성 통계량인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의 크기를 살펴보았다.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에서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두 변수간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553으로 나타났고, 모든 변수에서 공차한계는 .10보다 높게 관찰되었으며, 분산팽창요인도 최대치가 1.619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분석모형이 왜곡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임파워먼트로 변수를 구분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투입하면서 각 단계별 모형 전체의 설명력 변화와 변수 추가에 따른 추가적인 설명력 변화 정도 및 그 유의미성, 추가되어지는 변수의 유의미성과 영향력을 중심으

로 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1단계 모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2단계 모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자아존중감, 3단계 모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아존중감에 사회적지지, 4단계 모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에 임파워먼트를 투입하여 이전 단계의 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변수가 새로 투입되면서 나타나는 모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1단계 모형을 보면, 모형 전체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8.220, p<.001$), 생활만족도 전체 변량의 약 15.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157$). 1단계 모형에 투입된 변수 중 건강상태($t=4.061, p<.001$), 경제상태($t=3.968,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1단계 모형에 자아존중감을 투입한 2단계 모형은 모형 전체로써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F=22.898, p<.001$), 생활만족도 전체 변량의 약 37.8%를 설명하고 있다($R^2=.378$). 1단계 모형에 자아존중감을 투입한 2단계 모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새로 투입된 자아존중감을 통해 생활만족도의 변량 중 약 22.1%를 추가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 \text{ Change}=8.200, p<.001, R^2 \text{ Change}=.221$). 2단계 모형에서도 1단계 모형에서처럼 건강상태($t=3.010, p<.001$), 경제상태($t=3.312, p<.001$)와 새로 투입된 자아존중감($t=9.687, p<.001$)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모형에서는 2단계 모형에 사회적지지를 투입하였으며, 3단계 모형은 모형 전체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관찰되었고($F=25.832, p<.001$), 생활만족도 전체 변량의 약 44.0%를 설명하고 있다($R^2=.440$). 사회적지지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3단계 모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를 통제한 후에도 생활만족도 전체 변량의 약 6.2%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text{ Change}=29.233$

p<.001, R² Change=.062). 3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수 중에서는 건강상태(t=2.722, p<.001), 경제상태(t=3.078, p<.001), 자아존중감(t=7.446, p<.001)과 새로 투입된 사회적지지(t=5.407, p<.001)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2단계와 같이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단계 모형에서는 3단계 모형에 임파워먼트를 투입하였으며, 4단계 모형은 모형 전체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관찰되었고(F=26.940, p<.001), 생활만족도 전체 변량의 약 48.1%를 설명하고 있다(R²=.481). 임파워먼트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4단계 모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임파워먼트를 통제 한 후에도 생활만족도 전체 변량의 약 4.1%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Change=20.489 p<.001, R² Change=.041). 4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수 중에서는 건강상태(t=2.29, p<.001), 경제상태(t=3.484, p<.001), 자아존중감(t=6.641, p<.001), 사회적지지(t=3.430, p<.001)과 새로 투입된 임파워먼트(t=4.527, p<.001)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1-3단계와 같이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지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임파워먼트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에게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변수 간 상대적인 영향력에서는 자아존중감(β =.340), 임파워먼트(β =.241), 사회적지지(β =.185), 경제상태(β =.162), 건강상태(β =.106) 순으로 생활만족도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변수(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B	β	t	B	β	t	B	β	t	B	β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156	.141	2.000	.057	.052	.847	.019	.017	.293	-.002	-.002	-.029
	연령	.000	-.003	-.050	-.008	-.057	-1.123	-.007	-.048	-.989	-.006	-.043	-.919
	교육수준	-.029	-.055	-.854	-.030	-.058	-1.040	-.024	-.046	-.865	-.021	-.041	-.803
	배우자유무	-.091	-.085	-1.343	-.107	-.100	-1.841	-.101	-.094	-1.828	-.093	-.087	-1.741
	건강상태	.136	.238	4.061***	.088	.154	3.010***	.076	.133	2.722***	.060	.106	2.229**
	경제상태	.162	.230	3.968***	.117	.167	3.312***	.104	.148	3.078***	.114	.162	3.484***
자아존중감				.368	.492	9.687***	.290	.387	7.446***	.255	.340	6.641***	
사회적지지							.257	.280	5.407***	.171	.185	3.430***	
임파워먼트										.265	.241	4.527***	
F Change	8.200***			93.845***			29.233***			20.489***			
F	8.200***			22.898***			25.832***			26.940***			
R2 Change	.157			.221			.062			.041			
R2	.157			.378			.440			.481			

p<.01, *p<.001
*타변수의 기본값은 더미성별 남자 = 0, 더미배우자유무 무 = 0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참여노인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임파워먼트 및 노인의 생활만족도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신재 외[4], 김소향 외[16], 지은숙[2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력을 통제 한 상태에서 자아존중감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김소향 외[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지지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지지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에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생활만족도 증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지지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장신재 외[3], 김영범 외[3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던 네번째 모델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를 통제된 상태에서 임파워먼트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요인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임파워먼트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임파워먼트가 노년기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삶의 방식이나 기회를 선택하는 데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임파워먼트를 높일수록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이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인간관계 및 친구관계 등 새로운 사회적지지망 형성, 지지자원을 만드는 교육프로그램 제공, 다양한 자원의 개발·연결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일자리 욕구에 부합되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같은 임파워먼트 접근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므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이 생산적이고 가치있는 존재로 느끼며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도록 원조함으로써 노인의 임파워먼트의 수준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노인 임파워먼트는 개인, 조직, 지역사회가 삶 전체에 지배력을 얻어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과정이면서 생활만족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기존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했던 임파워먼트의 변인들도 범주화하여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것이다. 또한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된 후에도 임파워먼트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임파워먼트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은 기존 연구와는 다른 본 연구의 차별성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천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국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좀 더 광범위한 지역표집으로 이를 검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인들의 변화나 차이의 양상을 분석 할 수 없었다는 점과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수평적인 검증만 하였기 때문에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차후에 수직적인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1] 유용식, "노인근로자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노인복지연구, 제66호, pp.37-54, 2015.
- [2] 하경분, 주민경, 송선희,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만족도와 생활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0호, pp.160-170, 2014.
- [3] 장신재, 조자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지지, 정서문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225-235, 2014.
- [4] 장신재, 조자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 참여만족, 경제상태만족, 자기가치감 변화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3호, pp.123-132, 2015.

- [5] 정세희, 문영규,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제14권, 제4호, pp.216-226, 2013.
- [6] 박용두, 정민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셀프리더십과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9호, pp.216-226, 2013.
- [7] 보건복지부,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보건복지부, 2014.
- [8] 김남희, 최수일, "여성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특성이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1호, pp.241-252, 2011.
- [9] 윤현숙, 구본미, "노인의 건강상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2호, pp.303-324, 2009.
- [10] 엄인숙, "노인의 생활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기우울에 미치는 영향," 복지행정논총, 제22권, 제1호, pp.73-90, 2012.
- [11] 조윤득, 윤은경, "대인관계적 임파워먼트가 노인의 우울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제51권, pp.57-80, 2011.
- [12] B. Neugarten, R. Havighurst, and S. Tobin,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16, pp.134-143, 1961.
- [13] R. J. Havighurst,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Vol.8, pp.67-71, 1968.
- [14] 김기태, 박봉길,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생활만족도 비교," 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 제5권, pp.65-85, 1996.
- [15] 최순남, 현대노인복지론, 서울: 학현사, 2002.
- [16] 김소향, 이신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9권, 제1호, pp.309-327, 2009.
- [17] C. A. Depp, and D. V. Jeste, "Definitions and predictors of successful aging: a comprehensive review of lager quantitative studies,"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Vol.14, No.6, pp.6-20, 2006.
- [18] 권치영, 김선웅, 임중철, 이홍직, "일자리 참여가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7권, 제2호, pp.427-433, 2007.
- [19] R. C. Atchley, *Adjustment to loss job at retirement*, In schaie and geiwitz(Eds), Adult development and aging, Boston: Brown And company, 1982.
- [20] 권중돈, 조주연,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0권, 제3호, pp.61-76, 2000.
- [21] 강현옥, 황혜원, "직업활동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44권, pp.89-110, 2009.
- [22] 사회영, 김현리, 주경옥 "ICF 모델에 근거한 노인의 삶의 질 예측 모형," J. of Korean Acad Nurs, 제41권, 제4호, pp.481-490, 2011.
- [23] E. Ferrans and J. Powers, "Psychometric Assessment of The Qullity of Life Index," Research in Nursing & Health, Vol.15, No.1, pp.29-38, 1992.
- [24] 김미령, "전기,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및 영향 노인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2호, pp.197-222, 2006.
- [25] S. J. Choi, *A study on development of life satisfaction scale of elderly*, Seoul: Ehwa Women's University Korea Culture Training Institute, 1986.
- [26] 김태현, 김동배, 김미혜, 이영진, 김애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19권, 제1호, pp.61-81, 1999.
- [27] 지은숙,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의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28] M. Rogenberg,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Y: Princeton Univ, Press, 1965.

- [29] 김계하, *후천적 지체장애인의 건강관련 주관적 질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30] 배지연, *노인의 자살생각에 관한 인과모형*,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31] I. H. Staples, "Powerful ideas and empowerment,"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Vol.14, No.2, pp.29-42, 1990.
- [32] G. M. Spreizer, "An empirical test of a comprehensive model of intrapersonal empowerment in the workpla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23, No.5, pp.601-629, 1995.
- [33] 이선영,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지각수준과 직무스트레스*,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34] 김영범, 이승훈, "한국 노인의 사회활동과 주관적 안녕감: 서울 및 춘천노인을 대상으로," *한국노년학*, 제28권, 제1호, pp.1-18, 2008.

저 자 소 개

유 용 식(Yong-Shik Yoo)

종신회원



- 2003년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7년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관심분야> : 사회복지, 노인복지, 지역복지, 다문화복지